

中國의 都市文化 景觀

학 회 사 무 국 장 홍 승 달

1. 개요

中國하면 우선 만리장성과 대운하를 연상하고, 돈황의 불고미술 桂林의 수향경치, 천안문 광장, 진시황 등의 토우군, 한무제의 무덤, 사막, 호수 등 그 경관이 다양하고 뛰어남에 감탄하게 된다.

中國은 광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10여일 정도의 견학 및 觀光으로 모든 곳을 다 볼 수 없기에 답사한 곳을 잠점으로 기술해 본다.

2. 北京

베이징은 4年の 王城으로 불리는 것과 같이 이미 10세기에 역사 무대에 등장한 中國의 수도이다. 즉 거란족이 세운 요가 이곳에 수도를 정하면서 이다. 이 당시 요나라는 난징(南京)이라 칭하고 수도로 정했다. 문화혁명과 천안문사태로 유명한 천안문 광장과 유명한 노구교(蘆溝橋)도 이곳에 있다.

천안문 광장은 세계 최대의 넓이인 40만^m2으로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객, 배드민턴 치는 사람, 테이트족이 물려드는 곳으로 옛날에는 承天門이라 했는데 清代에 개축하면서 天安門이라 개명했다. 人民英雄紀念碑는 천안문 광장에 서 있는 높이 38m의 석조 오벨리스토 모택동이 쓴 문자가 새겨져 있다. 紀念碑 남쪽에는 모택동 주석 기념당이 있다. 광장 동쪽에는 歷史 博物館과 革命 博物館이 있다. 歷史 博物館은 北京 猿人에서 아편 전쟁까지 中國 歷史에 관한 전시실이며 革命 博物館은 그 이후의 歷史 특히 공산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광장 서쪽에 있는 人民大會堂은 우리나라 국회 의사당에 해당되는 곳이다.

故宮은 세계최대의 博物館으로 皇宮이라고도 하는데 동서 750m 남북 1,000m의 장방형으로 면적은 약 72만km² 인데 사방 10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폭 50m의 해자가 있다.

白塔은 北海公園에 있는 티벳식탑으로 古宮의 서북쪽에 있다. 북해공원에 서 가장 유명한 것이 北京料理인데 특히 궁중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서쪽끝에 비문을 모은 열고루 비가 있다. 이 밖에 元代의 중심지였던 고누, 鐘樓, 라마교 사원인 용화궁, 오희풍너을 빌었던 天壇, 中國 고전문학의 대표작인 홍주몽의 촬영장이 되기도 했던 大觀園, 북경 동물원, 북경시 서부 교외에 있는 靑代의 여름 별궁으로 사용되던 빈화원은 곤명소후로 유명한데 주위에 人工山인 만소산이 있다. 만수산 북쪽에는 後湖라는 동서로 긴 연못이 있고 이 주변은 소주와 경치가 비슷하다. 이밖에 원명원유지, 番山, 臥佛寺, 碧雲寺 등이 있다.

3. 長春

人口 200만의 길림성 省都이다. 中國 지방의 地理的 중심지로 자동차, 객차, 용모, 모피제조업 등이 발달된 工業 都市이다. 長春의 가로는 20여m의 버드나무가 차지하고 있어 「長春의 여름의 눈」으로 불릴 정도로 여름 바람에 흔들린다. 이것은 옛 滿洲國의 首都市에 일본 정부가 심은 것이다. 長春 참의 역을 뒤로 하고 나서면 앞에는 들레가 500m 정도되는 로터리가 있으며 정반대쪽에는 長春市街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쓰따린따지에(사대림大街)가 있다. 長春은 옛 滿洲國의 首都로 그 당시 지은 고건축물이 많이 있다. 춘의빈館(대화호텔), 당길림성위원회(관동군 사령부), 제5상점구관(그 당시 백화점), 인민은행 장춘분행(만주은행본점) 등이 있다. 대개 新民廣場까지 약 3km가 원래 滿洲國의 官廳街이다. 新民廣場 북쪽에 있는 南湖公園은 보트장, 레스토랑 등이 있어서 낚시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로 늘 붐빈다. 여름

에는 서늘하며 무성한 숲과 파란 호수가 잘 어울려 한 여름의 좋은 피서지가 된다.

웨이황궁은 新發廣場 동북쪽 2km 지점 근교에 있는데 괴뢰 황제가 살던 곳으로 현재는 길림성 博物館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長春 제일 자동차 공장은 新中國 최초의 대형트럭 '解放'을 오늘날까지 계속 생산하는 곳으로 공장안에는 보육원, 학교, 발전소가 있다. 長春 객차청은 中國의 모든 철도 객차를 만드는 곳이며 최근에는 北京의 지하철 차량도 여기서 만든다.

4. 桂林

「桂林의 산수는 천하제일이다.」는 말과 같이 桂林의 곳곳에 카르스트 지형에서만 볼 수 있는 산봉우리가 솟아 있는 화남지방에 위치한 人口 38만의 지방도시이다. 가을이면 계수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곳이라 桂林이라 한다. 桂林 시내 한가운데로 리장(리강)이 흐르고 있으며 옛날 기원전 214년 진시황제가 이곳에 링취운하를 파면서 군사상의 기지로 발달되면서 역사상 등장되는 都市이다. 桂林은 리장(리강) 서쪽에 발달된 조그만 都市로 푸뽀산, 디에차이산이 있고 증산중도 남쪽으로 한 5분 정도 가면 산후와 룡후의 두개의 호수가 있어 아베크족의 데이트 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桂林의 주요 가볼 만한 곳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징이양푸(靜江府)는 1369년에 明나라 창시자 주원장이 조카 주수경을 왕으로 임명하여 보내면서 건축한 성으로 현재 저택, 성벽 등이 남아 있다. 징지양은 桂林(꾸이린)의 옛이름이다.

뚜시우펑(獨秀峰)은 306계단으로 된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전망대로 주위의 호소와 시가지, 강이 어울려 주위 풍경이 일품이다.

디에차이산(루채산)은 카르스트 地形의 여러 봉우리가 어울려진 진기한

산으로 평동(風洞)이란 굴이 바로 옆에 있어서 靑나라때 시와 그림이 진열되어 있다.

리장(리강)은 桂林 觀光의 하이라이트로 中國에서 제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다. 桂林 시내 선착장에서 약 83km 남쪽에 있는 양수어(陽朔)까지 8시간의 배여행을 말하며 겨울에는 갈수기여서 揚堤(양띠)까지 버스로 가서 그곳에서 3시간의 배여행을 한다. 구궐양장의 구불구불한 강의 양안에 솟은 기암절벽들이 천하제일의 절경이다.

5. 廣州

中國의 國際 都市로는 北京, 상해 등이 알려져 있지만 대외무역의 중심지는 廣州이다. 해마다 中國 수출 상품회가 열리는 봄, 가을에는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물려든다. 廣州의 변화함이 대부분 홍콩으로 옮겨졌지만 廣州는 아직도 시장, 레스토랑 등이 즐비하다. 국제도시 廣州는 한나라때 부터 번영했는데 이때부터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진출하던 바닷길의 기점으로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어 唐, 宋, 明, 靑나라 때에는 해상무역의 메카로 등장하여 제국주의의 각축장이 되었던 곳이다. 1840년 아편전쟁, 1911년 황허강(黃花崗) 봉기가 이곳과 관계가 있다. 廣州의 구경거리로는 珠江, 流花公園, 혁명열사의 묘 등이 있다.

越秀公園은 廣州의 상징인 五羊(우양)석상이 있어 유명한데 옛날 5명의 仙人이 입에 이삭을 물고 있는 5마리의 양을 데리고 왔다는 전설에 근거하

여 1959년에 만든 큰 석상이다. 공원 남쪽에는 中山紀念堂, 鎮海樓 등이 있다.

六榕寺(리우룡스)는 사리탑으로 유명한데 花塔이라고도 한다. 높이 57.6m의 9층탑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밖에 동물원, 光孝寺, 光塔, 白雲山 등이 주요 觀光地이다. 젊은 시절 모택동과 주은래의 습격을 느끼게 해주는 廣州 農民運動 講習所舊址에도 그 당시의 의자, 책상, 흑판 등이 아직 남아 있다. 백운산은 廣州市 동북쪽 교외에 이어지는 구룡의 총칭으로 주봉은 해발 382m인 모싱링이다. 靑나라때 건축한 明珠樓, 水月閣도 규모는 작지만 아름답다.

6. 홍콩

동서양이 뒤섞여 있는 도시 홍콩. 맨하탄을 연결하는 뽕뽕한 빌딩, 삼판선 생활 난민굴동 빈곤과 풍요가 한데 어울려 있는 아시아 최고의 번화지 홍콩은 세계의 모든 값싼 상품을 살수 있는 쇼핑,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풀코스로 먹을 수 있는 중화요리, 빅토리아 파크에서 보는 야경등 진기한 각종 쇼핑 觀光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홍콩의 시작은 치더(啓德)국제공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中國 여행의 관문이 되기도해서 中國行 비행기, 열차, 배, 버스 등이 출발한다. 홍콩은 현재 英國의 직할 식민지인데 1992년에 조차기간이 끝나 中國에 반환하게 되어 있다. 1842년 난징조약에 의해서 홍콩섬(80km²)이 中國으로부터 英國에 할양되고 1960년에는 베이징조약에 의해서 對岸의 구룡반도 선단 구룡시(5km²)가 英國에 1893년부터 99년간 조차하게 되어 있다. 홍콩은 현재 총 102km²이며 홍콩섬 북안 항구도시를 빅토리아라고 부른다.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처음 시작했으나 현재는 각종 공업이 성하여 가공무역항으로 등장했다. 주민 98%가 中國人인 화교이고 政治는 英國 총독이 관할한다. 홍콩섬에

는 고층건물이 즐비하고 주룽시는 상업과 써비스 등 소비생활을 주로하며 新界에는 각종 공장이 모여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의 신공업국의 韓國, 대만, 싱가포르 등과 함께 홍콩도 끼어 있다.

7. 白頭山

中國 지도를 펴놓고 北韓과의 國境을 鴨綠江을 따라서 올라가면 동쪽으로 튀어 나온 동경 128°, 북위 42° 가 교차하는 곳에 白頭山 天池가 있다. 이 부근 일대가 長白山脈이며, 그 주봉이 國境을 이루고 있다. 해발 2,744m에 있는 天池는 물이 차갑고 그 빛깔이 신비스런 정도로 투명하고 깊은 곳은 312.7m로 한장의 커다란 거울같이 주위에 빙둘러 비치는 모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신비스럽다. 하얼빈을 흐르는 松花江과 韓·中 國境을 이루며 흐르는 鴨綠江 일대는 大陸으로 말 달리던 高句麗 무사들의 웅장한 기상이 살아 있는 곳이다. 또 日本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빼앗긴 靑島를 되찾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던 우리 선조들의 피맺힌 절규가 묻혀 있는 곳이다. 현재 이 지역은 韓人自治區域으로 韓民族의 風習을 유지하고 있다.

白頭山은 自然保護區域으로 지정되어 保護되고 있는데 정상 부근까지 짚차로 올라갈 수 있다. 白頭山 천연온천, 68m의 물보라를 일으키는 거대한 장백폭포, 자작나무숲, 각종 고산 야생화 등이 장관을 이룬다. 白頭山을 中國측에서는 長白山이라고 부르며 이 일대에는 朝鮮族이 많이 살고 있다.

8. 圖們

延吉에서 열차로 1시간 정도 가면 北韓과의 국경도시인 조용한 圖們 시가 지가 나온다. 역에서 15분정도 걸어가면 國境인 圖們 강가에 도착한다. 이 강 근처의 야트막한 언덕에 올라가면 강 건너 北韓의 시가지와 산들이 보인다. 北韓과는 철교와 다리가 놓여져 있고 양쪽 국경수비대가 주둔하고 있

다. 다리근처에 기념사진가가 있어 2元정도에 사진을 찍어 준다.

9. 龍井

龍井은 옛부터 龍이 승천했다는 우물에서 유래하여 地名이 탄생되었는데 지금도 龍井 시내에 이 우물이 잘 보관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윤동주의 묘소가 있어서 널리 알려진 都市이다. 우리 朝鮮族이 많이 살며 龍井茶로 유명하다.

10. 延邊

延邊 韓人自治州는 연진(연길), 광진, 훈춘, 호룡, 아부, 둔화등 6개현을 거느리고 朝鮮族 약 200만이 사는 소수민족자치주이다. 청조시대(1889년)이래 많은 韓國人들이 豆滿江을 건너서 연길시를 중심으로 그 일대에 개척한 자치주로 延邊大學에 韓國人들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